

#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토론활동의 설계\*

-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 Design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using Recommended Book List: The Case of D University

윤 유 라 (You-Ra Youn)\*\*

이 은 주 (Eun-Ju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독서토론활동의 설계와 실행 |
| II. 대학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 IV. 결 론             |

**요 약:** 대학생에게 독서란, 단순히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즐거움을 위한 개념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성 교육이자 진로 교육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학에서는 독서관련의 교양수업을 개설하거나 필수 학점을 구성하는 등의 강제적인 지도에서부터 대학생에게 적합한 인문·교양도서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생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지원방법 중 권장도서목록과 이를 활용한 독서활용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과 독서토론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권장도서목록은 주제분야와 자료가 현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목록에 대한 정보도 서지사항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권장도서목록을 활용방법에 대한 제안도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야의 다양한 구성과 참조정보를 보완한 권장도서목록을 제안하였고, 하브루타를 활용하여 독서토론방법을 구조화하였다.

**주제어:** 독서교육설계, 독서토론, 권장도서목록, 독서교육, 하브루타, 젠더

**ABSTRACT:** For University students, reading is one of the important way of character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that can give students the power to recognize and adapt to changes in society. The university supports the reading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in various ways, such as opening liberal arts courses related to reading or setting up required credits. In addition, it supports activities such as selecting the recommended book list for university students and providing the l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university's recommended book list and methods of using reading, an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using D University as an exampl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ommended book list and reading discussion program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were investigated. In the current recommended book list, the subject area and list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times, and the information on the provided list was very simple.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uggestion on how to use the recommended book list. Through this, the recommended book list with the addition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omposition of the subject area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reading discussion method was structured using Havruta.

**KEYWORDS:** Design of Reading Education, Recommended Book List, Reading&Discussion, Huvruta Learning, Reading Education, Gender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ryoun@deu.ac.kr / ISNI 0000 0004 6098 1699)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0년 8월 25일 • 최초심사: 2020년 8월 25일 • 게재확정: 2020년 9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325-350,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325>

## I. 서론

대학에서는 복합적 사고와 유연성을 배양하여 사회에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독서에 주목하고 있다. 독서는 '경험적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며, 가치를 담은 독서를 통해 진위, 선악, 미추(美醜) 등의 가치판단의 기준과 능력을 부여하게 해준다(坂本一郎 1971). 나아가 자기 자신이 타인의 입장에서 서 봄으로써 사회적 감각을 기르게 해주며, 인간관계의 해석과 자신이 가졌던 편견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즉, 대학생에게 독서란, 단순히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즐거움을 위한 개념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성 교육이자 진로 교육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학에서는 독서관련의 교양수업을 개설하거나 필수 학점을 구성하는 등의 강제적인 지도에서부터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인문·교양도서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생의 독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김주연 2019).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권장도서목록이다. 그러나 권장도서목록은 고전중심의 도서 선정에 대한 비판과 목록의 효용성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양선은 자발적 읽기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 위주로 목록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글 읽기에 대한 관심을 도리어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권장도서, 교과목 지정도서, 독서인증제 지정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이 고전위주로 설계된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양선 2009). 그러나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의 가치를 고려해 선정된 도서목록이 흥미위주의 독서만을 고집하는 독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자기 선택적 독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소병문 2019).<sup>1)</sup>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서는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장도서목록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보완과 개선점이 필요할 것인가. 여기서 최근 미국의 권장도서목록과 관련된 변화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09년, 51권으로 구성된 하버드 대학교의 Harvard Classic(하버드 고전)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시작된 "General Honors"라는 위대한 저서를 읽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위키피디아). 그러나 이러한 권장도서목록에 대해 서구중심, 유럽중심, 백인중

1) 소병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 선택적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연구한 결과,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도서선정의 자율성을 보장이 자율동기에 따른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

심, 남성중심의 가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원화된 글로벌 시대의 가치에 부합하기 힘들다는 목록선정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함께(손승남 2013), 자율적이고 내면적인 활동인 독서를 강제하려한다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왔다. 이에 최근 미국 대학의 독서교육은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고전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의 명저와 화제가 되는 저작들을 주제 중심으로 선정하고, 단순히 읽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토론-글쓰기가 연계되는 통합적인 독서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국환 2014).

즉, 보다 세분화된 주제분야의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해보면, 첫째, 대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해서 고전 뿐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선별하여 관련 도서목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하고, 둘째, 단순히 권장도서목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함께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이제는 각 대학별로 대학생의 수준에 현시점에 다루어야 할 다양한 주제의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독서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학생활 동안 읽을 적서(適書) 목록을 충분히 제공하고 동시에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관심과 수준 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료를 선택하고 독서의 강·약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독서습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독서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단계로 D대학의 학생들을 위해 현재의 권장도서목록의 변화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를 활용한 독서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독서토론활동을 구조화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연구자는 D대학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써 몇 년간 학생들을 대상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한 경험을 토대로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관찰과 면담, 제출된 독서지도 관련 과제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리하였다.

2)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독서교육방법 중 하나인 독서토론활동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시의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범 권장도서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방법 중 하나로 하브루타식 독서토론을 제안하고 독서토론과정을 설계하였다.

4) 설계된 독서활동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총 24명과 함께 진행하고 독서활동 전·후 면담, 구조화된 독서토론활동지와 성과발표회 결과를 정리하여 개선된 권장도서목록과

독서토론모형의 효용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단위, 즉 사례에 대해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사례연구(case study)임과 동시에 실천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실행연구(Action research)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하나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연구 문제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고, 경험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실천을 재계획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나 현실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데 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이용숙 2005, 19-20). 이에 대학의 독서교육에 대한 반성과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D대학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는 점과 설계된 독서토론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연구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분석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하고 그 활용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II. 대학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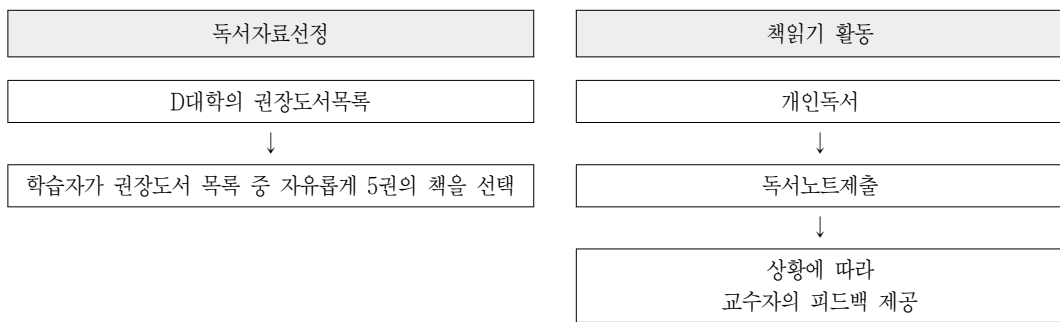
여러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독서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독서활동의 추이가 결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이만수 2010; 박정길 2006). 그렇다면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부족은 단순히 습득 매체의 다양화와 즐길 거리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여전히 그 어떤 대학도 쉽사리 독서를 포기하지 못하고 대학의 직·간접적인 독서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 간절함은 여전히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독서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찰한 대학생의 독서활동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D대학의 독서교육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설계되어야 할 독서활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활동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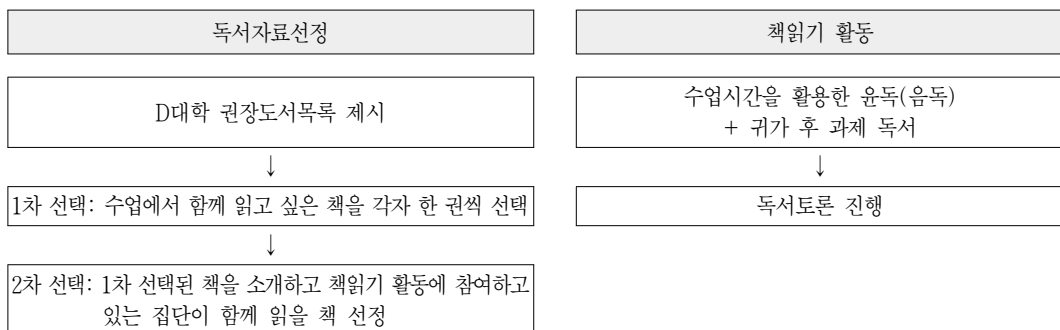
연구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구자가 속한 학과에서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D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독서활동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를 학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학년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하여 그 중 5권의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2015년~2019년 진행). '독서노트'의 작성에는 어떠한 형식의 제한도 없었으나 매주 제출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독서현황을 점검하고 교수자와 소통하도록 하였다. 독서노트에는 책에 대한 질의, 교수자에 대한 질의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의에 대한 응답과 독서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생각을 피드백하여 돌려주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활동 개괄

4학년은 1권의 책을 '함께 읽는' 소위 윤독(輪讀) 활동을 통해 책을 읽도록 지도하였다(2017년~2018년 진행). 학생들은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하여 각각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선택하고, 선택된 책을 수업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집단이 함께 읽을 한권의 책을 선택하였다. 이때, 각자가 선택한 책을 다른 학생들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읽기'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함께 '음독(音讀)'을 하고 동시에 귀가 후 스스로 일정 페이지를 읽어오도록 하는 과제 독서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완독한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토론 시간을 진행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활동 개괄

교수자는 D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독서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권장도서목록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된 도서목록을 제공할 경우 학생들의 도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독서활동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선정되어있는 목록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엇을 읽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판단하여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학년에서 진행한 '독서노트'활동에서 몇 주간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3주 동안 책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다.

“A 학생: 권장도서목록을 몇 번이나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난해한 주제들이 많아 쉽게 선택 할 수가 없었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 (3월 1주차)

“B학생: 고민하다 책을 골랐다. 읽기조차 쉽지 않은 수많은 등장인물 때문에 새로운 책을 다시 고르려 한다.”(3월 2주차)

“C학생: 원래 고전은 읽기가 힘든 것이겠지요?” (3월 3주차)

둘째, 독서는 개인의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와 토론활동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다. 즉, 학생들이 무형식의 독서노트에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할 것이며, 토론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주저하고 고민하였으며, 나아가 교수자가 일정한 형식을 제공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수자와의 의견교환을 희망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의 생각이 정당한지 혹은 비논리적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의하고 있었다.

“교수님, 저는 파리대왕의 주인공을 통해 고립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책과 랠프 중 어느 쪽을 선택 하실건가요? 저는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리대왕』을 읽고, 5월 1주차)

“주인공이 집을 뛰쳐나갈 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울타리를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인형의 집』을 읽고, 5월 1주차)

이러한 문제는 4학년의 토론시간에도 나타났는데, 교수자가 토론의 주제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첫 번째 발제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셋째, 윤독을 위해 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다소 쉽고 재미있게 읽어 낼 수 있는 책을 고를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그런데 의외로 기술·과학 영역의 주제분야에서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책이 선정이 되었으며, 문학작품에서도 혼자서 읽기 힘든 고전이 선택되었다. 학생들에게 책의 선정 이유를 물어보니, 다소 난해한 책을 함께 읽으면 완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토론이라는 독후활동을 통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함께 읽은 책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마지막 장면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조금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수업평가지-12월 9일)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새롭습니다.”(수업평가지-12월 9일)

이에 연구자는 일련의 결과물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독서가 자유로운 지적활동을 지향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교육적 입장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제시하는 독서교육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발전적인 독서관련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셋째, 주제에 따라 혼자 혹은 다수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타인과 공유(公有) 독서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독서의 질을 높이고 즐길 수 있도록 향후 공유독서법 등의 다양한 독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2. D대학의 독서관련프로그램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D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D대학에서는 21세기 미래사회의 변화와 사회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철학 아래 “사회 나눔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교육 중 하나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에는 <표 1>과 같은 독서관련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표 1〉 2019년 D대학도서관의 독서관련프로그램

유형	방법
권장도서목록의 제공	100종의 추천도서목록 제공
독서토론동아리모집과 지원	동아리를 조직하여 도서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읽은 후 독서토론문을 작성 제출
독서 PT 대회	독서한 내용의 주제와 감상을 PPT형식으로 제작하여 발표
독서캡처	도서관에서 1박을 하며 책을 읽는 프로그램
다독상	1년간 대출건수로 다독상 수상

이 중, 권장도서목록과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서토론동아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가. 권장도서목록 구성의 현황

먼저 권장도서목록 구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장도서관 일정한 연령과 시기에 맞추어 갖추어야 할 교양, 전공,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를 수집해 놓은 것으로 필독도서, 권장도서, 선정도서, 추천도서, 정독도서 등 다양하게 명칭 되고 있다. 즉,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또는 꼭 한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말한다(신기철, 신용철 1996, 3604). 시간적 제약 속에서 어떠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인가 고민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인 것이다.

권장도서를 선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겠으나, 플랭클린 왈터는 보편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권장도서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총 1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총합적 목적성(overall purpose), ② 학생들의 욕구(student need), ③ 교사들의 필요(teacher needs), ④ 다원적이고 성차별을 두지 않는 대표성(pluralistic and nonsexist representation), ⑤ 권위(authoritativeness), ⑥ 출처의 명확성(authenticity), ⑦ 범위(scope), ⑧ 체제와 기술적인 질(format and technical quality), ⑨ 내용상의 논리와 형식의 정제성(content treatment and arrangement), ⑩ 미학적 고려(aesthetic considerations), ⑪ 구입비용(cost), ⑫ 공정한 논의(controversial issues), ⑬ 자료원의 공유(resource sharing), ⑭ 지향성(trends)이다(이만수 2010, 214). 또한, 이만수(2010)는 대학에서 목록을 개발할 때 반영해야 할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정서적 측면, 지식정보습득의 측면, 교양과 인격형성의 측면을 고려하려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2) 이만수가 제안한 3가지 목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정서적인 것에 목적을 둔다. 사색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둘째, 대학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셋째, 대학생들에게 교양과 인격 형성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대학생들에게 교양, 인성, 심성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 대인관계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것 등이다(이만수 2010, 184-224).



권장도서의 개념과 선정기준에 의거하면 권장도서목록을 구성함에 있어서 크게 2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보전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장도서목록은 독자에게 도서 선택의 도구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도서가 독자에게 필요한 책인지를 쉽고 간단히 가려낼 수 있는 정돈된 정보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선정된 도서 자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도서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 뿐 아니라 시의성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D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은 이러한 측면들이 고려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D대학교는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독서를 통한 교양함양과 지적 성장을 지원하며 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이 주축으로 2015년 교양 100선을 선정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주제영역은 인문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 분야로 총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 36종, 40종, 24종이 선정되어 있다. 도서목록은 서명, 저자명과 청구기호 등의 간략서지사항으로만 기술되어 있었다. 권장도서의 출판년도를 살펴보면 72%의 책이 기원전부터 20세기에 걸쳐져 출판된 책으로 28%의 책이 21세기에 출간된 책이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발간된 책은 2012년에 발간된 인문사회분야의 책이었다.

<표 2> D대학교 권장도서목록의 출판년도

	인문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	총계
기원전	3종	1종	-	4종
~1900년	5종	6종	-	11종
1901년~1999년	17종	26종	14종	57종
2000년~	11종	7종	10종	28종
총계	36종	40종	24종	

이처럼,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서가 주제 분류가 매우 단순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고전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D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표 3>과 같이 연구자가 살펴본 4개의 대학(S대학교, Y대학교, B대학교, T대학교<sup>3)</sup>)의 권장도서목록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4개의 대학은 대외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권장도서목록을 가진 S, Y대학과 최근에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권장도서목록을 발표한 곳(B대학)과, 독서교육을 필수 교양으로 구성하여 지도하는 대학(T대학)을 선정하였다.

〈표 3〉 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의 현황

S대학교	선정위원	각 학문영역별 교수(약 20명)
	선정배경	학생들이 개별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문사회자연과학의 기초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동서양 고전을 선정
	목록현황	한국문학 17종, 외국문학 31종, 동양사상 14종, 서양사 27종, 과학기술 11종
Y대학교	선정위원	Y대필독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목록현황	한국문학 23종, 중국문학 15종, 일본문학 5종, 영미문학13종, 서양고전문학 7종, 프랑스문학 9종, 독일문학 9종, 러시아문학 9종, 제3세계문학 10종, 철학·예술분야 30종, 역사지리분야 30종, 사회과학분야 25종, 자연·응용과학분야 15종
B대학	선정위원	각 전공 교수(1차: 57명, 2차: 5명)
	목록현황	인문/사상 30종, 사회과학 25종, 자연과학 21종, 문학예술/기타 30종 등 총 106종을 선정
T대학교	심의위원	교양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
	목록현황	지혜와 자비 21종, 존재와 역사 28종, 경제와 사회 30종, 자연과 기술 24종, 문화와 예술 18종

S대학교에서는 ‘S대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있었다. 특정 주제영역이 아닌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기초학문영역 특히 동서양의 고전을 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Y대학교는 ‘Y대 필독도서 200선’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추천도서 수가 양적으로 많은 만큼 주제분야도 13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문학, 철학·예술,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목록을 발표한 B대학에서는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현대 명저 106선’이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예술/기타라는 4가지 영역으로 추천도서목록을 선정하고 있었다. T대학교는 철학, 문학, 예술, 종교서 등의 고전을 기본으로 교양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목록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재 대학에서 개발되어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도서를 제시하고 있기보다는 옛 선인의 철학과 사상, 문학 등의 고전과 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생들이 현실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권장도서목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D대학의 비롯한 타 대학의 정보전달은 단순히 서지사항의 전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현재의 권장도서목록은 서명과 저자, 출판사로 구성된 수준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선택하기 위해 또 다른 정보원에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각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선별된 만큼 보다 세분화된 분류와 소주제 제시 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자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 D대학과 몇몇 사례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권장도서목록은 그 목표가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교육철학을 담고 있거나, 학생들의 성향이나 특징을 반영하여 도서목록을 제안하고 있지 않았다. 대학별로 그 명칭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동소이한 주제분야로 목록을 구성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의 몇 가지의 주제분야로 한정되어 도서를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이 고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옛 선인의 철학과 사상, 고전문학 등을 위주로 추천도서 목록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도서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권장도서를 상대적으로 읽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배경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흥미는 물론 독해조차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sup>4)</sup>

셋째, 권장도서목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서지사항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독서자료를 선택하거나 활용방법을 찾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향후 권장도서목록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겠다.

첫째, 향후 권장도서목록은 대학교유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대학별 맞춤형 자료를 보완하는 등, 목적성과 실용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겠다.

둘째, 권장도서목록을 일정주기마다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시의적절한 권장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목록을 서명과 저자로 서지사항만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내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도서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도서목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나. 권장도서목록 활용 프로그램의 현황

D대학에서는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독서토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D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 대학교육을 통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6개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나눔과 소통'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나눔과 소통'은 사회를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소통방식을 익혀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 중 하나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타인을 설득하는 법을 배우도록 유도하는데 이 중 하나로 토론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4) 물론 이러한 고전에 치중된 권장도서목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한림대학교에서는 한림교양필독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독서수준과 흥미를 고려하고, 시의성이 있는 신간 도서와 동서양 고전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의 권장도서목록의 선정 기준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대의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도서목록을 지향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독서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내용이 난해하거나 추상적인 도서는 피하고, ② 각 학문 분야의 최근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 즉 당대성 내지 시의성을 고려했다. ③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 예술 및 융·복합 등 총 4대 분야 도서를 고루 선정하고자 했다. ④ 동·서양 고전의 비율을 50% 내외로 정하여, 고전 위주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D대학도서관에서도 이러한 교육적 방향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토론교육을 위해 권장도서목록을 기본 텍스트로 한 독서토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독서토론은 토론 구성원들이 특정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논의할 문제를 도출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언어활동이다. 나아가 독서토론활동은 단순하게 동일한 책을 함께 읽고 공유한다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읽은 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총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김라연 2007).

독서토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김승환은 독서토론의 장점을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①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② 책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③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④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민주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⑤ 발표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미덕을 기를 수 있으며, ⑥ 독서 치료적인 차원에서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승환 2004, 5). 또한, 구자황은 대학생에게 독서토론은 첫째,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둘째, 사회진출 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독서 토론 교육은 단순히 화법이나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의 가능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나와 주변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다른 이의 체험과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나아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수사적 맥락을 고려해가며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자황 2007, 293-394).

이렇듯 독서토론은 복합적인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독서토론기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D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토론활동은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을까.

D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토론의 하나인 도서관주관의 독서토론동아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D대학의 독서토론동아리 개요

활동의 목적	가. 재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 인식 및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 확장의 기회 제공 나. 자유로운 독서 토론과 독서 활동으로 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다. 능동적인 독서 마인드 형성 및 개인 역량 강화
동아리 구성	동아리 인원 4인으로 1개 동아리 구성 / 20개 동아리 모집
활동의 기본사항	가. 독서감상문 제출: 동아리별로 선정한 도서를 읽고 개인별 독서감상문 총 1회 제출 나. 독서토론 활동: 동아리별로 독서토론 활동 후 독서토론문 총 1회 제출 다. 동아리 활동 종료 시 독서토론동아리 최종 활동보고서 제출
활용 도서자료	D대학도서관 권장도서목록

도서관에서는 학기별로 4인 1팀으로 구성된 약 20개의 독서토론동아리를 모집하여 약 2달간의 독서토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토론동아리의 목적은 첫째, 재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 인식 및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자유로운 독서 토론과 독서 활동으로 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셋째, 능동적인 독서 마인드 형성 및 개인 역량 강화에 있다. 독서토론동아리활동 후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은 개인별 독서감상문 제출과 팀별 독서토론문 제출, 최종 활동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의 양식을 살펴보면 토론과 관련한 어떠한 형식도 주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아리명		참가자명단		
일시		장소		
서명		저자	출판사	
동아리별 독서토론문				
〈자유기술〉				

〈그림 3〉 D대학의 독서토론동아리의 독서토론문 양식

〈그림 3〉과 같이 독서토론문의 형식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어떠한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토론문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과 방식의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텍스트의 형태와 학생들의 독해수준에 따라 자유로운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방대한 텍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토론의 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본적인 형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산만한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학의 독서토론활동의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토론은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형식의 토론보다는 일정부분 구조화된 형식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병구는 숙명여대에서 진행된 〈인문학독서토론〉의 수업에서는 ‘논쟁형’ 독서토론 모형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서토론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학습자들에게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등의 텍스트 인지 유형을 고려한 사전 연구문제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독해를 진행하며 토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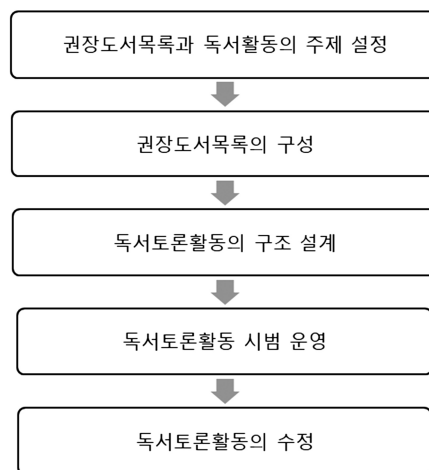
주장한다(김병구 2011).

이승윤은 패널 토론 방식의 독서토론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교수자가 정해놓은 독서토론 논제를 기준으로 사전에 찬성과 반대 팀으로 팀을 나누고, 요지문을 작성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이승윤 2015, 11-36). 요지페이퍼는 ① 용어의 개념, ② 도서 관련 추가 설명, ③ 논제 입장에 대한 주장 근거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을 주제토론보다 하나의 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책의 내용에 대한 산만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론지도를 위해서는 세부적 요건과 통제가 일정부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적 목표와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의 독서토론프로그램의 경우, 텍스트의 선택에서부터 토론이 시작되는 전인 읽기활동과 독서토론이 진행되는 과정, 독서토론의 맺음까지 구조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례들이 대학의 독서교육 연구에서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Ⅲ. 독서토론활동의 설계와 실행

2장에서는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과 이를 활용한 독서토론활동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실제로 권장도서목록의 주제 선정과 개발을 비롯하여 독서토론활동 방법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의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독서토론활동 설계 순서

먼저, 권장도서목록의 독서활동의 주제분야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참고자료를 통해 권장도서 목록이 제공해야 할 정보제공요소를 분석하고 권장도서목록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독서토론활동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때, 이미 토론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어 있는 하브루타식 토론방법을 참고하였다. 이후 시범운영팀을 통해 독서토론활동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하였다.

### 1. 권장도서목록의 주제 설정과 구성

앞서 선행연구 및 D대학의 권장도서목록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현재의 권장도서목록은 도서 선정을 위해 고민되어야 할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지향성(trend) 이른바 당대성(contemporariness)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보편성과 가치중립성으로 대표되는 권장도서의 선정 기준, 고전 중심의 권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제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로 단편적인 서지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보제공방식을 탈피하여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주제분야를 선정하고 목록을 구성하였다. 주제는 첫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 대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주제, 두 번째로는 읽기 활동과 함께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한 주제는 ‘젠더’였다.

주지하다시피 ‘젠더’는 소위 남녀간의 ‘관계’를 다루는 개념이다 보니(신경아 2014)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성별 불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나누는 이항대립의 질서에서 형성되며, 여성의 해방이나 자유도 결국 남성과의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는데서 얻어지기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젠더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유엔개발계획(UNDP), 옥스팜(Oxfam), 유네스코(UNESCO),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 등의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젠더감수성 고양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의 방법은 독서 중에서도 특히 참여형 독서토론방법과 일정부분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정재원, 이은아 2018, 11-35). 이에 독서토론활동을 활용한 ‘젠더 감수성’ 교육을 설계하게 되었다.

젠더를 주제로 한 권장도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1)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고민할 수 있는 기본서 위주의 목록개발 즉,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기본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젠더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도서를 다수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다소 읽기가 부담스러운 교양서뿐 아니라 보다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소설과 수필 등의 문학류를 도서목록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선정도구로는 국가단위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물협회 등의 추천목록과 각 대학에서 배포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 젠더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 및 학술잡지 등을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총 30권의 젠더에 관한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권의 권장도서목록에 1차 정보와 2차 정보를 나누어 서지사항 외에 세부주제 및 읽기수준과 책소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볼 거리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5>에서와 같이 1차 정보는 서지사항을 표제/저자/출판년도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후 세부 주제분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념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젠더에 대한 이해도를 도울 수 있는 설명위주의 책인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 사례집인지 등을 구분하였다. 발행국가를 한국과 외국으로 구분하고 읽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책과 내용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책을 구분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게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차 정보에는 책의 간략 줄거리와 중요 내용 및 작가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책소개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표 5> 젠더관련 권장도서목록의 제공정보

1차 정보	서지사항		표제/저자/출판년도
	세부주제	글의 형태	문학/비문학
발행 국가		한국/외국	
텍스트구조		개념과 설명/주장과 근거/사례정리/서사	
	읽기수준		상/중/하
2차 정보	책소개(간략줄거리, 작가소개 등), 논의점		

이를 반영한 권장도서목록의 예는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주제분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주제가 두 종류 이상 담겨 있을 경우 모두 나열하였다. 이때, 보다 더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먼저 기술하거나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기호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주장과 근거가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부수적으로 사례도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주장과 근거/사례”로 표기하였다.



〈표 6〉 젠더관련 권장도서목록의 1차 제공정보의 예

	표제 (원표제)	저자	출판 년도	주제분류	읽기 수준
1	세여자	조선희	2017	젠더, 문학, 한국, 서사	하
2	자기만의 방 (Room of one's own)	버지니아 울프	1929	젠더, 비문학, 외국, 주장과 근거	하
3	가부장 무너뜨리기 (Why does patriarchy persist?)	캐럴 길리건, 나오미 스나이더	2018	젠더, 비문학, 외국, 주장과 근거	중
4	여성성의 신화 (Feminine mystique)	베티 프리단	1963	젠더, 비문학, 외국, 개념과 설명/주장과 근거	중
5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나혜석, 장영은 엮음	2018	젠더, 문학/비문학, 한국, 서사/주장과 근거	중

〈표 7〉 젠더관련 권장도서목록의 2차 제공정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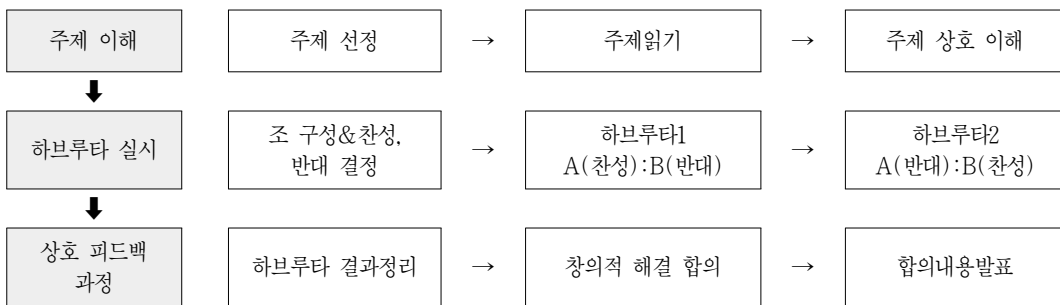
여성성의 신화	<p><b>* 책 소개</b> 베티 프리덴(Betty Friedan)이 1963년에 저술한 『여성성의 신화』는 제2세대 여성주의 운동을 촉발한 책이다. 저자는 다수의 여성들을 만나 그들이 주부로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 주부들의 삶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들'을 발견함으로써 사회가 여성들을 인간이기 이전에 어떻게 '여성'으로 만들고 억압받아왔는지를 밝혀내었다. 프리덴은 여성의 역할을 결혼하여 출산하고 육아하며 남편을 위해 내조하는 등의 가정 내에만 국한시키는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을 어머니나 주부 혹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 중심 사회의 시각을 규탄하였다. 나아가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가정과 자녀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성적 특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p> <p><b>* 생각해보기</b> 1. 평등은 같음?인가 아니면 공정함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2. 자신의 성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인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p>
감정노동	<p><b>* 책 소개</b> 『감정노동』은 1983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사회심리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읽히는 필독서이다. 감정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과 감정이 제품(상품)으로 인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본 뒤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책으로, 향후 감정사회학이라는 사회학의 새로운 학문분야 창시에 밑거름이 된 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승무원과 추심원의 노동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노동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서 설명하지 못한 감정노동을 개념화하였으며, 감정노동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측면이 많다는 관점에서 젠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p> <p><b>* 생각해보기</b> 1. 오늘날 사회에서 새로운 서비스 직종들이 증가하고 있고, 각 직종에서 요구하는 감정노동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저자가 제시하는 &lt;감정이름&gt;에 따라 본인이 가진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름을 붙여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만나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에 대해 인지해 보고, 그들의 감정노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p>

## 2. 독서토론활동의 구조설계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토론교육이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과 같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필요가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및 사례 관련 정보가 폭넓게 교환되지는 못해왔다(박상준 2009).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독서토론을 구조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다양한 주제의 토론교육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적용되고 있는 하브루타식 토론기법을 참조하여 독서토론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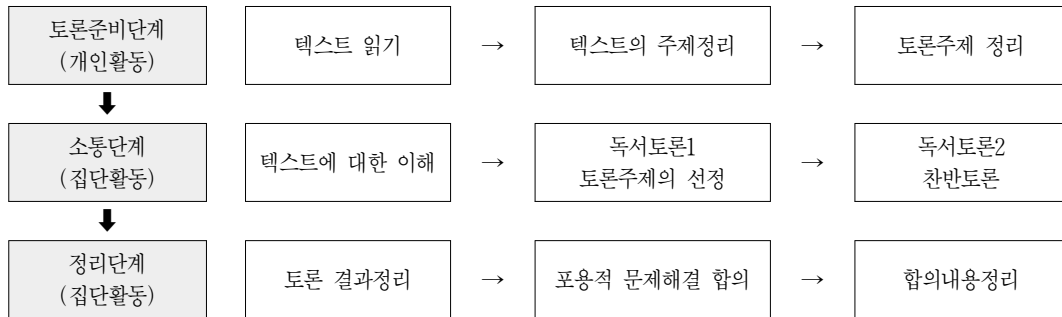
하브루타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던 유대인의 일반적인 토론 교육 방법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교체하여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Kent and Allison 2012). 하브루타 활동은 찬반으로 나누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감으로써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과 동시에,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독서토론교육에 적용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헤츠키 등(2014)은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을 진행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 5>와 같이 토론 전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상호 이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토론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5> 하브루타 교육법의 운영 과정(헤츠키 외 2014, 112)

본 연구에서는 헤츠키 등의 도식을 참고하여 주제이해과정을 개인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토론의 준비 단계로 집단 간의 독서토론과 상호 피드백 과정을 소통과 정리단계로 정리하여 <그림 6>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6〉 하브루타를 적용한 독서토론 순서도

또한 토론의 준비와 정리단계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개인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토론주제를 정리하는 등의 토론준비단계를 위한 활동지 <표 8>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개인은 선택된 도서를 읽고, 팀원들과 함께 토론할 주제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문제를 정리하는 ‘생각(idea)’단계를 거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는 ‘사실(fact)’단계,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issues)’,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하는 ‘해결책과 실천계획(action plan)’을 고민해보는 4단계의 과정을 수행하여 토론주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토론의 준비단계(개인활동)의 활동지

* 도서명: * 오늘의 토론주제: * 생각해볼 문제:			
생각 (ideas)	사실 (fact)	더 알아야 할 과제 (issues)	해결책과 실천계획 (action plan)
<책을 읽고 느낀 점/문제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가설이나 추측>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또는 실천 계획>

이러한 준비단계가 끝나면 개인이 작성한 1단계 활동지를 바탕으로 함께 모여 토론할 주제를 선정하고 찬반토론을 하게 된다. 이후 정리단계에서는 <표 9>의 활동지를 참고하여 팀이 가지고 있었던 토론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술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발견한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기록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9〉 정리단계(집단활동)의 활동지

도서명: 최종토론 주제: 생각해볼 문제:	
포용적 문제의식(도출)	포용적 문제해결
〈동아리 구성원 개인별 관점에서 현상, 사실, 추측, 설명〉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해결방법 도출 - 질문을 통한 사고의 확장 - 합의된 의견 또는 합의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3. 독서토론활동의 시범운영

본 연구는 독서토론활동의 설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계된 독서토론활동의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권장도서목록과 토론방법의 향후 활용가능성과 이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간단히 점검해보았다.

시범운영은 총 6팀으로 구성된 남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범운영팀은 ‘젠더’라는 권장도서목록 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녀가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표 10〉 독서토론활동 시범운영팀의 일반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0	41.7
	녀	14	58.3
학년	2학년	5	20.8
	3학년	15	62.5
	4학년	4	16.7
소속단체	인문사회	12	50
	공과	8	33.3
	상경	4	16.7

각 팀은 권장도서 중 2권 이상의 도서를 선택하여 독서토론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별활동지와 팀별활동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의견과 독서토론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단한 면담조사를 실시

시하였다.

각 팀에서 제출한 활동지의 예는 <그림 7>과 같다.

[활동지 1] 젠더 하브루타 개인 활동지(3차)

날 짜 : 2019-11-01/도서관 스테디룸 2층

팀 명 : 도화지

이 름 : \*\*\* (2015\*\*\*)

* 도서명: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 오늘의 토론주제: 각자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상 속 성적 차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 생각해볼 문제: 페미니즘, 성차별			
단어(Words)	사실(Fact)	더 알아야 할 과제(Issues)	실천계획(Action Plan)
도그마 일반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봉되고 주장되는 명제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주장되는 명제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 여성들은 진급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본인의 공백, 커리어 문제 등이 당연시 돼왔다. 가사노동에서도 성차별을 느꼈으며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양성 평등하고 동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2.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에서 있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고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 역시 존재함 3. 페미니즘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 없음. 좋게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차별이다.	일상에서 쉽게 젠더관련 서적이나 영화 등을 접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젠더 문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때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전시 여성의 인권은 물론 현대로 오기까지의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인권이 현대인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팀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공유하면서 페미니즘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남녀의 다름을 존중하고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권한 등을 동등한 위치에 두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사소한 것부터 바뀌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젠더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림 7> 토론 준비단계(개인활동)의 활동지의 작성 예

시범운영팀을 대상으로 한 결과물과 면담 등을 통해 연구팀이 개발한 권장도서목록과 독서토론 방법의 장점과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권장도서목록에서 도서를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읽기수준정도’와 간략한 줄거리를 정리한 ‘책소개’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도서목록에서 읽기 수준을 참고하여 상, 중, 하 자료를 고르게 읽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A팀 면담 중

“우선 책제목에 통해 끌리는 책을 몇 권 선택하고 책소개 글을 읽어보고 토론할 책을 골랐습니다.”

- B팀 면담 중

둘째, 주제에 맞추어 고전뿐 아니라 소설과 사례집 등의 다양한 장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권장도서목록을 통해 함께 읽으면 좋을 다양한 장르의 책이 파악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 A팀 면담 중

셋째, 책의 내용이 어려웠지만 체계화된 토론활동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었다고 대답하는 등 모든 팀에서 독서토론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독서토론 활동 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A팀 활동결과지

“독서와 토론을 통해 ‘젠더’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 다른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내가 놓쳤던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배운 느낌이라 뿌듯했다.”

- C팀 활동결과지

“책을 읽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변해가는 사회와 그 속의 젠더의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F팀 활동결과지

넷째, 그러나 독서토론활동의 순서도와 활동지 등이 배부되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인 17명(75%)의 학생이 책의 내용과 하브루타 활동이 어려웠다 라고 토로하였다.

“토론의 형식이 주어지긴 했지만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 A팀 면담 중

“처음 개인활동을 할 때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좀 더 활동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B팀 면담 중

이상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 및 장르의 다양성에 의해 도서선택과 독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브루타 식을 토대로 한 독서토론법에 대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토론방법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가이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에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독서토론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예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 IV. 결 론

급격한 고용변화가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진로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을 필요로 한다. 2017년 4월 열린 교육부 개최 전국대학 진로취업포럼에서는 앞으로 대학은 학생들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갈수록 가속화되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교-일 진로전환기에 놓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백정기, 이제경 2019).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로적응성이 단순히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진로적응성은 직무에 대비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이 예측 가능한 일 뿐 아니라, 직업 환경에서의 변화로 유발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로 정의할 수 있다(Savickas 1997). 장계영은 진로적응성을 개인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여러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며, 진로결정, 직업으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라고 하였다(장계영 2009). 즉, 진로교육은 단순히 해당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주는 복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도방법 중 하나로 독서가 언급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장도서목록의 개선과 이를 활용한 독서토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고전 중심의 권위적 선정과정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제분야의 도서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단편적인 서지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보제공방식을 벗어나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정보제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권장도서목록을 구성하였고, 서지사항 외에 세부주제 및 읽기수준과 책소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볼 거리 등을 기술하여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권장도서를 활용한 독서토론활동을 위해 이미 다양한 주제의 토론교육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적용되고 있는 하브루타식 토론기법을 참조하여 그 모형을 설계하였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권장도서목록과 독서토론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구자황. 2007.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어문연구』, 53: 279-298.
- 김라연. 2007. 모듬 독서 활동에서의 인지적 독서 행동 변화 양상. 『독서연구』, 17: 83-108.
- 김병구. 2011. '논쟁형' 독서토론 방식을 활용한 대학 독서토론 교육의 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학』, 78: 487-515.
- 김승환. 2004. 독서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독서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1-22.
- 김양선. 2009.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28-50.
- 김주언. 2019. LAC 교과목으로서 『명저읽기』 강좌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모색. 『교양교육연구』, 13(4): 235-253.
- 박상준. 2009. 대학 토론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 시론. 『어문학』, 104: 27-56.
- 박정길. 2006.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3-22.
- 백정기, 이제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2(2): 79-98.
- 소병문. 2019.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독서 동기 유형에 끼친 영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77-198.
- 손승남. 2013.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전 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7(4): 449-472.
- 신기철, 신용철. 1996.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이국환. 2014.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교육. 『동남어문논집』, 37: 389-421.
- 이만수. 2010. 대학생을 위한 필독도서 선정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1: 184-224.
- 이승윤. 2015.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한 독서토론 지도 방안. 『리터러시연구』, 13: 11-36.
- 이용숙. 2005.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장계영. 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정재원, 이은아. 2018. 대학생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 『교양교육연구』, 12(5): 11-35.
- 坂本一郎. 1971. 『現代の讀書心理學』. 東京: 金子書房.
- Hezki, Arieli and Jin-Ja Kim. 2014. *Talmudic Havruta Learning*. Seoul: iMD Center.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Great\\_books](https://en.wikipedia.org/wiki/Great_books)> [인용 2020. 8. 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ung-Ki and Je-Kyung Lee.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2): 79-98.
- Goo, Jahwang. 2007. "A Preparatory Study for College Writing Education." *EOMUNYEONGU*, 53: 279-298.
- Jang, Kye Young. 2009.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Ph. D. di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eong, JaeWon and Euna Lee. 2018. "Gender Training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Gender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5): 11-35.
- Kim, Byeong Goo. 2011. "A Study on the Structured Way of the Education of Reading and Debate at University Utilizing Reading Debate Model." *Korean Language & Literature*, 78: 487-515.
- Kim, Joo-Eon. 2019. "A Study on the Orientation of 'Reading Classics' as a LAC Subjec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4): 235-253.
- Kim, Ra Yeon. 2007. "A Study of the Aspects of Changes in Cognitive Reading Behavior During Book Club Activit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7: 83-108.
- Kim, Seung-Hoan. 2004. "A Study of the Reading Material Use on the Reading Discuss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3): 1-22.
- Kim, Yang Sun. 2009. "The Model Study for The Education of Reading and Discussion at University." *Studies in Humanities*, 23: 28-50.
- Lee, Kook-Hwan. 2014. "Reading Education as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37: 389-421.
- Lee, Man-Soo. 2010.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Required Reading Books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31: 184-224.
- Lee, SeungYun. 2015. "Methods of Guidance on Reading Debate to Promote Critical/Creative Thinking Cap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3: 11-36.
- Park, Jeong-Gil. 2006. "A Study on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s

- Poor Readin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 3-22.
- Park, SangJoon. 2009. “A Study on the Problem Solving Method of University Debate Education.” *EOMUNHAK*, 104: 27-56.
- So, Byoung Moon. 2019. “An Analysis on Impact of the Self-selected Reading Program Using Recommended Book Lists to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77-198.
- Son, Seung Nam. 2013. “The Great Books Program and the Direction of Humanities & Classic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4) : 449-472.